

【P2-19】

한국인 크론병 환자의 영양상태

강은희, 양석균, 장남수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영양학과,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크론병 환자에게는 체중 감소와 설사 등의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철, 엽산, vitamin B₁₂ 등 미량영양소의 결핍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론병 환자에게 영양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영양소 섭취부족과 흡수불량, 신체 소모량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영양상태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의 영양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진단 받은 평균 연령 27.9 ± 6.5세의 환자로 남·녀 각각 49명과 40명으로 총 89명이었다. 이들의 BMI는 평균 18.2 ± 2.2kg/m²이었고, 18.5kg/m²미만의 저체중 그룹에 속하는 환자는 남·녀 각각 44.4%, 69.2%였다. 조사대상자들 중 최근체중변화율이 -10%를 초과한 경우가 59.5%로 나타나 크론병 환자의 심한 체중감소 현상을 반영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섭취한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 영양소 적정도비(Mean Adequacy Ratio : MAR)와 식품의 다양성 지수(Dietary Diversity Score ; DDS)를 측정된 결과, MAR은 0.7과 DDS는 3.1의 낮은 점수를 보여 섭취하는 식사의 질이 낮고 식사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 환자들의 에너지 섭취량과 이들의 혈청 알부민, 총 단백질, 엽산 및 적혈구엽산 수준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단백질영양상태가 불량한 환자(혈청알부민 ≤ 3.2g/dl)의 비율은 전체 환자의 53.5%이었고, 혈청알부민 수준이 2.1g/dl 미만의 심각한 단백질영양불량환자의 비율은 10.5%이었다. 환자들의 43.9%가 설사를 하고 있었으며, 배변횟수가 1일 평균 3회 이상인 환자에서 3회 미만 배변을 하는 환자에 비해 혈청 알부민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혈청엽산, 적혈구엽산, vitamin B₁₂의 수준에 따라 영양상태를 평가한 결과, 결핍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이 각각 38.4%, 18.6%, 23.3%이었고, 혈중 hemoglobin, hematocrit, iron, ferritin수준으로 철 영양상태를 평가하였을 때는 철분 결핍 상태로 판정되는 환자의 비율이 각각 60.4%, 55.0%, 77.5%, 55.6%이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준은 평균 11.00 ± 5.82 μmol/L이었고, 혈청엽산, 적혈구엽산 수준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15 μmol/L 이상의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을 보인 환자는 전체 대상자 중 15.3%를 차지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에게는 영양소 섭취량과, 생화학적검사에 의해 판정된 영양상태가 불량한 환자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론병환자 각자에게 적절한 질병치료와 영양공급이 절실하다고 본다. 크론병 환자가 식사시 동반되는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식품섭취를 과도하게 기피하는 경우에는 환자 각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섭취하도록 개별화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